

광주시 '인체이식 의료기기' 시장 선도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기업' 산자부 평가 '우수' 특허출원 38건·해외 인허가 8건, 수출 계약 4559만달러 등 성과

광주시가 몸에 넣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시장 선도를 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 인허가 획득, 임상 마케팅, 해외전시회 지원까지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출 주도형 글로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다.

주관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생체재료개발센터)과 참여기관인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재)광주테크노파크,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티디엠, ㈜휴덴스바이오 등 의료기기 중소기업 116개사 총 471건의 전주기 맞춤형 기업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글로벌 비임상실증센터(생체재료개발센터) 구축을 비롯한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AAALAC-I 인증) 획득, 해외 인허가 획득 8건, 특허 출원 38건, 4559만달러(한화 596억원 상당)의 수출계약 성과 등을 거뒀다.

특히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생체재료개발센터)은 광주권 최초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 승인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도 지정되는 성과도 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바이오 인터페이스 인체 이식형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에도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전남대학교에 2026년까지 국비 등 총 사업비 176억원을 투입해 노후질환 대응용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특화 전주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전 분야 실증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확장하고, 치과·정형외과 분야 외에도 심혈관·일반외과·안과 분야 제품개발, 상용화 기술지원 체계와 국제인증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국내 첨단 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융복합 의료산업과 인체이식형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메디헬스케어 대표도시' 광주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첫 내부업무 클라우드 전환

DJ센터서 보고회...9개월간 시·군 142개 정보시스템 교체

전남도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내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성공해 지난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한해남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장,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HN클라우드(주),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에 선정돼 130억원의 국비를 확보,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간 전남도와 시·군에서 사용하는 142개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후 안정화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내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성공했다. 전환의 핵심 요소인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가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이 결실을 맺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이 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확산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클라우드 전환·통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2명 발생

피부에 상처 있으면 바닷물과 접촉 삼가해야

전남도가 올해 도내에서 2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사망함에 따라 어패류 익혀 먹기 등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들은 재래시장 등에서 구입한 어패류를 날 것으로 섭취한 후 빨간색 부어오르는 피부 발적, 호흡곤란,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모두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1월 영광 갯벌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분리된 후 해수와 갯벌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온도가 섭씨 18도 이상 상승하는 5-6월경부터 여름철, 특히 8-9월에 가

장 많이 발생한다. 주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접촉하면 감염된다. 바닷물 접촉 후에는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고, 바닷물 어패류는 가급적 5도 이하 저온에서 저장해야 하며, 어패류를 취급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요리할 도마나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또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잠복기가 12-72시간 내로 짧고, 치명률이 50% 정도로 높아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축산농장 폭염 대처 점검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가 5일 함평군 대동면 강은리 축산농장을 방문해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김영록 지사 "폭염·태풍 대비 행정력 집중"

전남도 재해대책회의...취약계층 밀착관리·신속 구조체계 등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후 재난 대책회의를 열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현재 북상하는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재해대책 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 모두 3차례 도청 실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은 것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 폭염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가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 지사는 폭염과 관련해 "농어민, 공사장의 야외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얼음조끼 등 예방물품 등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직접 팔 조끼, 팔 스카프를 착용해보며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 "폭염 대응 관련 본예산에 이어 최근 예비비로 추가 반영한 수산 분야 액화산소 공급사업과 축

산 분야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이 도민에게 큰 호응이 있었다"며 "필요하면 예비비를 추가로 더 투입해 지원을 확대할 것"도 강조했다.

태풍 '카눈'이 예상 경로보다 좌측으로 이동할 경우 전남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가 강풍과 폭우에 따른 산사태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도민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에서 열리는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생수·얼음·구급차·구급약품·암물박스 등 물품을 공급하고, 중앙부처 요청 시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제공하며, 전남의 문화·역사를 체험할 5개 관광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신세계 이전, 교통 등 철저 검증"

신세계에 조치안 마련 요구...적정성 검토해 상정여부 결정

광주시는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 주변 일대의 교통개선대책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이마트 부지 옆 광주시 소유 도로의 선형 변경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광주시는 제안서 접수 이후 두 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6월 교통, 경관, 기반시설 등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한 데 이어 교통개선대책 등이 담긴 조치계획 제출을 광주신세계 측에 요구했다.

현재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안은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로, 아직까지 결정·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보완 요구한 사항 등을 반영한 광주신세계의 조치계획안이 접수되면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공동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용수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광주신세계백화점이 확장되면 주변 광천동 일대 교통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광주신세계 측이 제출한 교통개선대책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 전형일: 2023. 10. 6(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9(금)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